

아리타 도자기의 역사

왜 아리타에서 자기가 발전했을까요?

16세기 말, 다이코(太閤, 은퇴한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는 두 차례에 걸쳐 한반도를 경유하여 중국 명나라 정복에 나섰습니다(임진왜란, 정유재란). 이것이 실패로 끝나 철수할 때 히젠 지방(현재의 사가현과 나가사키현)의 다이묘(영주)들과 무장들은 한반도의 장인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침략이 시작되기 전부터 히젠의 연안 마을인 가라쓰 지역의 다이묘는 조선인들에게 도자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가라쓰 도자기라는 무공질 석기(stoneware, 도기와 자기의 중간적 성질을 지닌 도자기)의 일종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라쓰 도자기는 규슈에서 가장 오래된 시유도기(유약을 바른 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많은 조선인 도공들은 아리타 지역을 포함한 히젠국 일대에서 가라쓰 도자기를 생산했습니다.

1610년대에 아리타 지역에서 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석’은 석영, 견운모가 다량 함유된 암석을 말합니다. 자기 제작에 필요한 종류의 점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돌입니다. 또한, 자기를 굽는 데는 많은 양의 나무도 필요합니다. 도석이 발견되고 산에서 목재도 풍부하게 공급되었던 아리타 지역은 일본 최초로 자기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일본 자기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리타 지역은 사가번에 있었으며, 사가번의 다이묘는 자기 생산에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8)에는 자기 가마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했습니다. 초기 아리타 도자기는 소성 전 표면에 코발트 계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후 투명 유약을 바르는 청과 백의 청화백자(일본에서는 소메쓰케(染付)라고 함) 기술이 특징입니다. 1640년대에는 현지 도공들이 중국의 상회 기술(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그린 후 다시 굽는 기술)을 배워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상채(일본에서는 우와에(overglaze enamel painting, 상회) 또는 아카에라고 불리는 붉은 그림의 이로에 자기(색회 자기, 자기 표면에 물감으로 무늬를 표현한 것)가 등장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외와의 교역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같은 히젠국의 일부였던 나가사키에서 무역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초, 일본과 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자기는 중국산 자기이며, 일부 영어권 국가에서는 현재도 자기를 ‘차이나(china)’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갈 때 발생한 내란(1618~1683)으로 인해 1644년경에는 중국의 수출이 중단되어 네덜란드 무역업자들은 일본산 자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리타 지역의 산간부에는 가마가 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가마와 인근 가마에서 생산된 자기는 이마리 항구에서 일본 전역으로 운반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 자기는 이마리 도자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단순히 이마리 지역에서 운반된 것이 아니라 이마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자기가 이마리 도자기라고 불리며, 에도 시대에 아리타 지역에서 만들어진 자기는 고이마리(古伊万里)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즈미야마 자석장의 발견

1610년대, 아리타 지역의 자기 생산은 마을 서부에 있던 조선인과 일본인 도공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중국식 청화 무늬를 주체로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석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수가 적은 자기는 많은 도기와 함께 같은

가마에서 구워졌습니다.

1616년, 가나가에 산베에(통칭:이삼평)(~1655년)라는 이름의 조선인 도공이 다른 도공들과 함께 아리타 서부로 이주해 왔습니다. 가나가에 산베에(통칭:이삼평)는 아리타 동부에 있는 이즈미야마에서 도석 매장지를 발견하고 인근에 새로운 가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즈미야마 자석장에서 채굴되는 도석은 대량으로 채굴할 수 있었으며, 자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석영, 견운모가 다량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1637년, 사가번은 아리타 지역의 자기 생산을 이즈미야마와 가까운 마을 동부에 집중시켰습니다. 가마는 자석장 근처 계곡의 비탈진 곳에 만들어졌으며, 강물을 사용해 목제 트립 해머를 움직여 도석을 부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순 가루를 물과 섞어 자토를 만들었습니다. 이즈미야마 근처에 있는 가마에서는 자기만 생산되었습니다. 자석장은 1980년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진 수출

17세기 후반, 수출이 늘어나면서 아리타 지역의 자기 생산도 급증했습니다. 이 무렵 중국 자기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유럽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상품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중에는 커피포트와 와인 디캔터, 맥주잔, 소금통, 겨자통 등 그때까지 아리타 지역의 도공들이 몰랐던 모양의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리타 지역의 장인들은 새로운 색상과 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아리타 도자기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양식 중 하나였던 것이 가키에몬 양식(유백색의 도자기 소지 위에 여백을 충분히 남긴 섬세하며 회화적인 구도가 특징)입니다. 우와에의 색상과 디자인이 특징이며, 독일의 마이센 자기 공방 등 유럽의 도자기 생산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18세기 전반에는 긴란테라고 불리는 또 다른 양식도 유럽 상류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긴란테 양식은 금채를 사용하여 호화롭고 색채가 풍부한 디자인을 만들어낸 중국 고대 양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680년대에는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지배하면서 평화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아리타 도자기는 갑자기 경쟁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1757년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아리타 도자기 수출을 정식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 일본이 대외 무역을 재개하자 많은 무역상들은 아리타 도자기를 해외에서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양과의 무역을 통해 해외에서 이미 발달한 새로운 기술도 유입되었습니다. 유럽의 장인들은 동양의 자기를 모방하려는 과정에서 석고틀을 설계하고 새로운 안료를 발견했으며 새로운 종류의 가마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장인들도 이러한 선진 기술을 자신들의 작품에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일본 정부는 국가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비단과 자기 등의 전통 제품의 수출을 촉진했습니다. 특히 1873년 빈, 1876년 필라델피아, 1878년 파리 등 여러 만국 박람회에서 아리타 도자기 등의 공예품 수출 진흥을 후원했습니다.